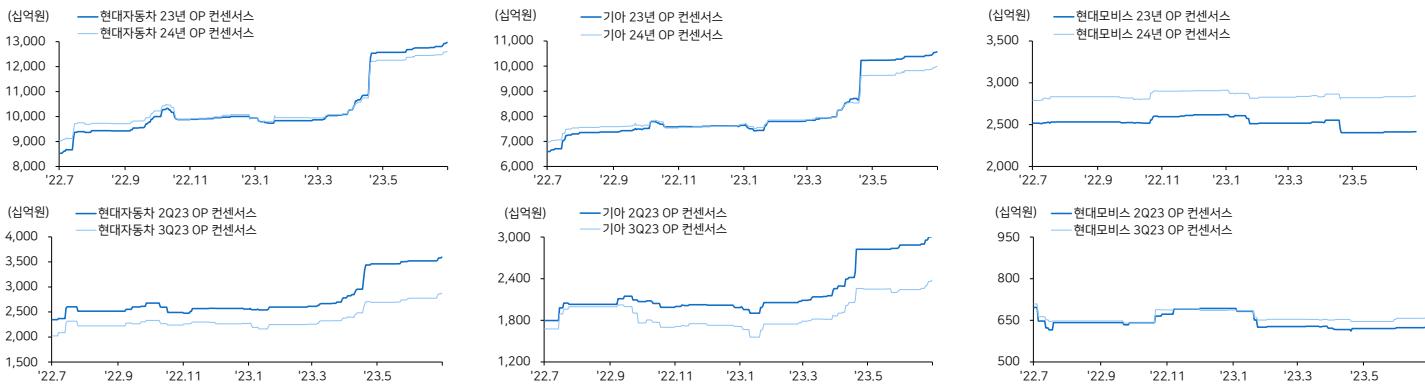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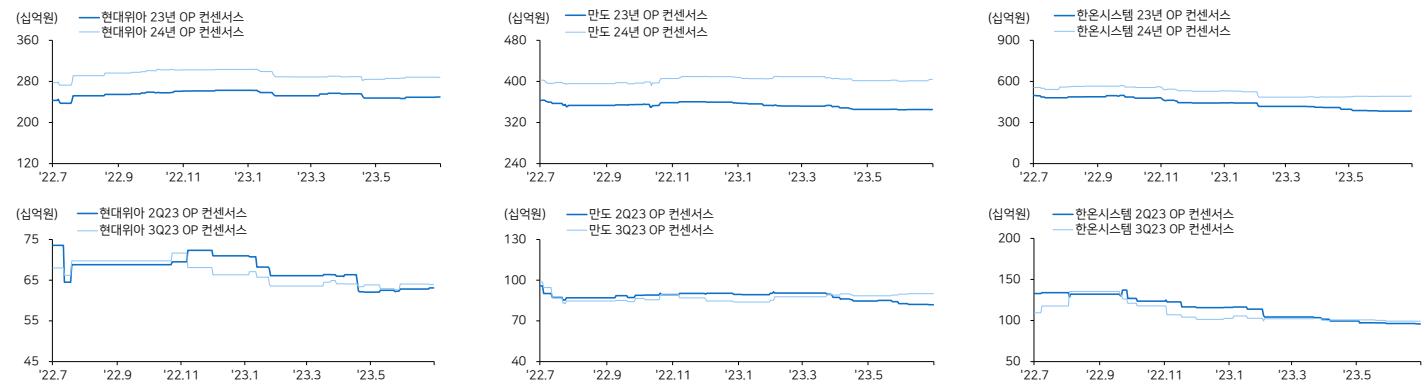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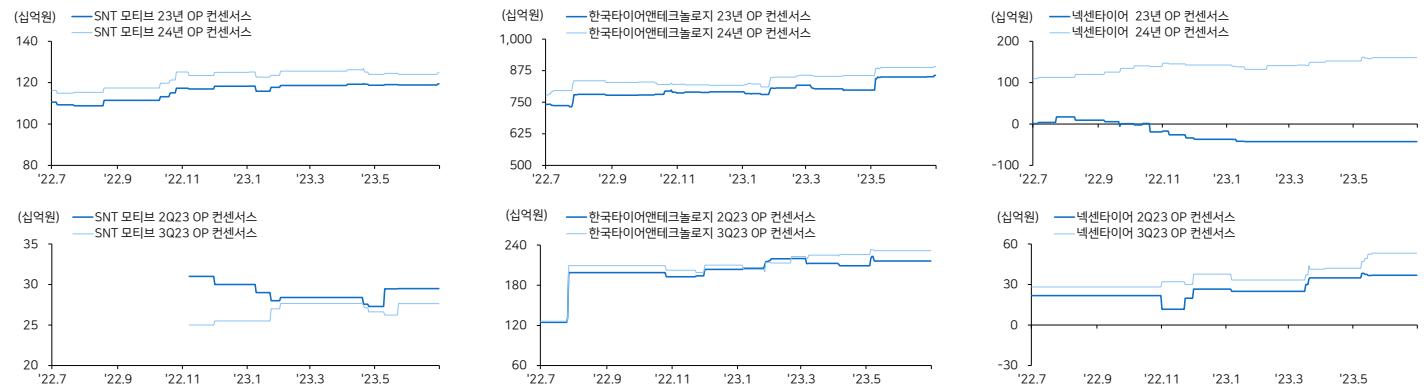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BYD plans battery and EV plant in India (Electrive)

BYD가 인도 현지 기업 Megha와 전기차 및 배터리를 제조하기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합작 투자 제안서를 인도 관할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비백부터 고급 모델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의 BYD 브랜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으로 전망

<https://han.g/lYFvHYC>

테슬라 "배터리 기술 특허 침해"…호주 충전기 회사에 손소송 (연합뉴스)

Tesla가 호주 충전기 회사 CAP-XX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CAP-XX의 슈퍼커파시터(대용량 충전기)가 Tesla의 자체 사인 맥스웰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에너지 저장 기술 관련 특허 기술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

<https://han.g/lMlgEd>

Tesla Giga Texas Nearly Finished Installing Megapack Units for its BESS (Tesmanian)

Tesla Giga Texas에서 2MW 용량 메가팩 68개로 구성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거의 완성된 것으로 확인됨. 업계에 따르면 현재 68개의 메가팩 중 44개를 설치하였고 136MW의 목표 설치량까지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

<https://han.g/efjxJB>

미래차 SDV 시동 건 포티투닷…자율주행차 첫 단추 (ZDnet)

업계에 따르면 포티투닷은 지난 3일 FMS 운영 업체인 유비퍼스트대원을 인수하고 합병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됨. FMS는 차량 내 단말기(텔레매틱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 및 제어에 용이

<https://han.g/lzWfLQ>

美 전기차 사업자에 초급속 충전기 1000기 공급 (파이낸셜뉴스)

SK시그넷은 급속 전기차 충전기 운영 사업자 '프란시스 에너지'로부터 최소 1000기 이상의 초급속 충전기 공급 계약을 수주함. 2027년까지 400㎾로트(RKW)급 초급속 충전기 1000대를 5년 동안 공급할 계획(NEVI 보조금 수혜 가능)

<https://han.g/dzwFOv>

Ford Significantly Reduces F-150 Lightning Prices: Up To \$10,000 Less (InsideEVs)

Ford는 전기차 픽업트럭 F-150 라이팅 가격을 최대 1만 달러 인하로 결정함.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제조원가 감소 및 배터리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업계는 Tesla의 Cybertruck 출시를 앞두고 가격 경쟁력 확보 움직임으로 해석

<https://han.g/lVsptTh>

상반기 차수출액, 45.3조 역대 최고…4대 중 1대 친환경차 (뉴스1)

올해 1~6월 자동차 수출액은 357억 달러(약 45조3247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46.6% 증가함. 브이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단기 가격이 높은 친환경차 판매 비율이 늘어난 결과로 2023년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

<https://han.g/lVsptTh>

Tesla May Launch V4 Supercharger with Contactless Payment (Tesmanian)

Tesla는 최근 Goodwood Festival of Speed에서 비접촉식 운행 카드 리더기와 내장형 DC콤보(CC51) 어댑터, 긴 충전 케이블 등을 갖춘 V4 Supercharger를 공개함. 차량당 최대 250㎾의 급속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https://han.g/lPqQGuA>

현대차 노사 갈등 '최고조'…"정년연장 이슈 안풀리네" (뉴스1)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 13일 9차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정년 연장에 대한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짐. 정년 연장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사측에 노조가 추가 파업을 비롯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임

<https://han.g/lWdpXs>

몸값 낮춘 탓다, 결국 '더스윙' 품으로…인수금액 약 230억원 (Bioter)

공유 킥보드 서비스 기업 더스윙이 비비리퍼블리카에 운영하고 있는 탓다 지분 60%를 약 230억~240억원에 인수할 것으로 보도됨. 기업 가치는 400억으로, 더스윙은 탓다를 인수를 통해 종합 공유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 목표

<https://han.g/lWwHWXk>